

지금의 세계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의 개발과 생산에 이어,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응용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문화 상품을 생산하여 유통·소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류로 일컬어지는 영화나 케이 팝 등을 통하여 그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 이어나가려면, 샘처럼 솟아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현대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시대이므로, 우리가 생산하는 문화의 정체성도 요구됩니다. 정체성이 없거나 모호한 문화는 일시적이고 생명력이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전통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사업단에서는 ‘울곡학의 콘텐츠 개발과 국제적 확산’이라는 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우수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쉽게 현대적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

다. 특히 전통 시대의 유교 문화 또는 율곡학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홍보 교재 개발로 젊은 세대에게 유교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청소년층의 올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서도 그 연장선에서 전통문화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인 수양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수양의 문제는 현대 한국인의 삶의 가치와 품격 더 나아가 영성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지를 다루는 무겁고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이론적 근거가 성리학이라는 철학이어서 그것을 전공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서는 이 점을 십분 고려하여 현대적 취향에 맞게 ‘율곡의 마음 공부’라는 주제로 이 유학의 수양론을 재해석하고, 예화를 곁들여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딱딱해지기 쉬운 이론을 현대의 젊은이나 청소년들의 처지에 맞추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님니다만, 주밀하게 시도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이 글을 통하여 각자의 꿈을 실현하고 삶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가꾸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 11. 28

울곡학 콘텐츠 개발과 국제적 확산 사업단장

최영진

사람들은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곧 세상 사람들이 모두 착하다면 이 세상은 참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상상이 그것이다. 그런 생각은 불행하게도 이 세상이 그렇지 못하다는 데서 나온다.

사실 철학자들도 이런 생각을 해 왔다. 악이라 일컬어지는 불선이 어디에서 유래하며 어떻게 하면 선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었다. 유학에서 말하는 불선의 근원은 인간의 부적절한 욕망이며, 반면 선의 확보는 수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였다.

그런데 현대의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으로 유지되는 체제이다. 욕망을 경쟁적으로 부추기고 그에 따라 상품을 대량으로 소비해야 경제가 활성화 된다. 더 나아가 이윤추구를 위해 아예 사람들을 욕망의 노예로 세뇌시킨다. 욕망의 악순환이다. 그것은 인간을 배부르고 편안하게 할지는 몰라도, 행복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지구가 부양할 수 있는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그마저도 일부 계층과

지역에 쏠려 있어, 다수는 생존마저 위협당하고 있다. 그렇다고 욕망의 대상을 무한정 생산하거나 골고루 분배할 수도 없다. 욕망의 배타적 속성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욕망을 조절해야 하는 수양의 문제가 등장한다. 수양은 다른 말로 마음공부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굳이 마음만의 공부는 아니다. 마음과 몸은 상호 작용하고 있어서 몸의 공부도 되므로 몸과 마음이 통합된 공부이다.

이렇게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에게는 마음공부를 말하는 것이 생똥맞은 일이겠으나, 젊을 때부터 수양을 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이익이다. 내 몸을 반듯하게 하면 미래에 더 많은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겠는가? 당연히 나이든 분에게도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에서 본서는 율곡 이이 선생의 『성학집요』를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예화를 곁들여 알기 쉽게 풀었다.

---

수양은 모든 고전들이 하나같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수가 그렇듯이 젊을 때 방종하고 늙어서는 탐욕에 빠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하다. 그러니 누구나 마음공부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면, 세상은 그만큼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2020. 11

이종란